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분과명 : 문화소통분과)



일 시	2023. 11. 9.(목) 15시			장 소	인천시청 본관 지하1층 소통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박광현, 이시현, 강유희, 고춘, 신은경, 이배원	
	15	9	6		
안 건	2023년 주민참여예산				

○ 심의내용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서면 모니터링 및 우수사업 선정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현장 모니터링 사업선정

○ 의결사항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서비스 개선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현장 모니터링 사업선정 : 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박광현		이상명		이시현	

위 원	발 언
부위원장 (이상명)	2023년 주민참여예산 서면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 대상 사업 및 우수 사업을 선정 하겠습니다. 사전 모니터링에서 높은 점수인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서면모니터링은 앞에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각 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내용 설명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의견을 주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그럼 첫 번째 사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서비스 개선 담당자께서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서비스 개선 사업설명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6개월 이상 임신부와 만4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다자녀 가정, 만 70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북한 이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2024년 예산에도 사업이 편성 되었나요?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네,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처음 시작했고, 2024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책을 운반해 주시는 겁니다. B도서관 이용자가 A도서관에 책을 신청하면 A도서관에서 B도서관으로 운반해줍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용역 업무를 하시는 분이 취약계층들도 할 수 있나요?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그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 거의 400권 가까이 책을 옮겨야 해서 건강하신 남자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아무나 할 수 없나요?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일단 화물운송사업자여야 합니다. 용역비 안에 인건비나 4대 보험비, 차량운행 통행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좋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반납했을 때 한권씩 반납이 되는데 더딘데 빠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기계시스템 파트라서 반납기계 만드는 업체에 불편한 점을 전하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좋은 사업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대출과 반납건수가 지금까지 1만건 정도 실적인데 일평균 30건 정도고 9개소면 1개소당 4건에서 5건 정도밖에 실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저희가 운영이 매일이 아니다 보니 일평균 계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홍보방안은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대량 확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 예산 문제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지금 용역 계약 업체가 한군데 입니까?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공개위탁을 해서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그사람들이 현재 하는 사업을 여유있게 하더라도 사업이 확충이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무조건 늘릴 수 만 없는 사업이 아닌가요?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네 맞습니다. 확장 시에 현재 차량 1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한 대가 인천시를 다 돌아다느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지금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올해 단순노무사원 1급으로 예산을 산출했는데 내년에 생활형임금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내년 사업은 가능합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위원님들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두번째 사업은 초등학교 북스타트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설명바랍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초등학교 북스타트사업 확대 실시 사업설명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담당자 이학정 위원	사업 진행 후에 정량적인 결과나 성과, 평가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

위 원	발 언
사업담당자 부위원장 (이상명) 사업담당자 김인철 위원 이학정 위원	<p>입니다. 책꾸러미 배부 후 회수도 진행하여 다음해에는 미신청자도 이용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내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위원님들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세번째 사업은 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입니다. 설명바랍니다.</p> <p>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 설명</p> <p>문화예술단체가 장소와 수요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참여하신 주민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p>
사업담당자	<p>섬이나 강화나 이런 쪽 모니터링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장님이나 마을에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능한 날짜를 수요조사 받아서 가장 많이 참석 가능한 날짜로 정해서 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습니다.</p> <p>소연평도나 자월도 같은 경우는 어린 공연을 한번도 관람하지 못했었는데 소규모 인원으로도 공연을 해줘서 고맙고 계속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연평도 같은 경우는 가야금이나 전통적인 것을 매칭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난다고 우시는 분도 계셨고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많이 만족하셨습니다. 설문조사도 했는데 매우만족 의견이 대다수 였습니다.</p>
이학정 위원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사업담당자	개선점이라고 하기보다는 횡수를 늘려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전통을 봤지만 다음에는 다른 장르로 클래식이나 연극을 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학정 위원	제도도 같은 곳은 원주민들이 공연을 보고 자기네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다시 공연을 하고 수익창출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공연을 해서 수입도 받아가는 그런 문화체험하고 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p>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젊은 분한테는 공연을 하면서 직접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소연평도에서 가야금 공연을 보시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서 공연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엄정산 위원	<p>도시에서는 문화정책을 접하는 부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곳에 사시면서 이런 공연 한번도 못보시느 분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어지면 좋은데, 1회성으로 끝나서 내년에 같은 곳에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예로 저희 동에서 주민자치회장을 하면서 동네 축제를 한번 기획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하는 것을 원했는데 1회성 사업이다 보니까 다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덮어놓고 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p>
사업담당자	<p>내년에는 해당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없어 문화재단 차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섬에 한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역으로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랑 연계해서 진행하려합니다. 생활동아리 활동하는 분 중에도 숙련도가 높아져서 공연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p>
현어진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이쪽에서 전국방방곡곡이라고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사업담당자	<p>방방곡곡 사업의 경우 문화회관연합회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문화재단이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고 해서 소외지역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p>
엄정산 위원	연평도 시작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앞장서서 했는데 인구가 많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데 섬에는 전여 수익 창출이 안되니까 시

위 원	발 언
사업담당자	나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해주면 못합니다. 별도로 사업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 되긴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기존에 1억짜리 사업을 5억원으로 확대해서 섬만을 뿐만아니라 인천 전역으로 확대시키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문화사업이라고 1억원사업도 연계해서 총 1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확정이 되면 1월달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문화재단과 실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열 위원	작년에 아트챌린저라고 전국대회를 인천에서 한번 열었습니다. 입상한 팀들 그리고 동아리 생활문화의 동아리팀들을 활용하여 인천시 내에서 공연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위원님들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네번째 사업은 시립도서관 청소년 및 트윈세대 도서 확충입니다. 설명바랍니다.
엄정산 위원	시립도서관 청소년 및 트윈세대 도서 확충 사업설명 사업추진률이 저조합니다.
사업담당자	12월달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추진률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아직 납품되지 않은 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학정 위원	개인적으로 도서관에 가면 청소년 책들이 잘나와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책들을 직접와서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서확충이 꼭필요한 것 같이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열 위원	별도의 얘기지만 아이들이 독서콘서트라든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한테 기사를 올려준다든지 아이들에게 뭔가 기록이 될만한 것을 연계하면 좀 더 책을 많이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명)	도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업담당자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나 기타 공개 타기관들의 추천도서를 반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도서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추천하거나 미디어에 추천하는 도서 위주로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명)	청소년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를 끌어줄 도서들이 선정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위원님들 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4개 사업에 대해 의견서 작성을 마무리 해주시고 집계가 되는 동안 현장모니터링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스타즈 사업을 현장모니터링 했습니다. 상반기때 하반기에는 섬을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엄정산 위원	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은 11월 22일과 12월 8일 사업이 남았습니다. 이미 사업이 종료되다시피 해서 현장모니터링할 시기는 지난 것은 아닌지?
이로미 위원	도서관은 찾아가면 방해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 참석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상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2월 8일 섬주민 찾아가는 문화살롱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정하고 자세한 것은 단체톡방을 통해 정하겠습니다. 우수사업은 인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 서비스 개선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